

해외파견 교류수학·취업캠프 등 프로그램에 학생참여 저조

학생들의 관심부족 가장 큰 문제... 교수들 적극 장려해야

기관 달라도 교내 프로그램 비슷해 학생참여 유도 못해

학생들을 위한 교내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저조한 참여로 문제되고 있다. 국제교류본부(본부장 강영훈 행정학과 교수)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해외 파견 교류수학, GNE(Global New Leader)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저조한 참여로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선발계획보다 적은 인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제교류본부의 2014학년도 1학기 해외 파견 교류수학 선발계획 인원은 176명이었지만 100명만 지원했다. 또한 2학기 해외파견 교류수학도 선발계획 인원이었던 143명

보다 적은 84명만이 지원했다.

취업캠프, 인턴십, 취업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취업전략본부(본부장 임재운 통신공학과 교수)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

김문규 취업전략본부 취업지원팀장은 “프로그램 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학생들의 참여율이 낮은 편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취업을 위해서는 스펙보다도 실무적인 면을 익히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취업전략본부에서 운영하는 인턴십 프로그램과 취업역량강화 트레이닝을 통해서 학생들이 취업을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

교내 프로그램 홍보에 대해 김문규 팀장은 “학교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하는 등 홍보를 하고 있지만 학생들에게 홍보가 잘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며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적극 장려해주면 더 큰 홍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술공동체, 워크숍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초교육원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상헌 기초교육원 실무관은 “참여율은 프로그램마다 다르지만 지원율이 낮은 프로그램이 꽤 있다”며 “다양한 교내 기관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 비슷한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빈(인문홍보학과 3)씨는 “교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잘해낼 수 있을지 겁이 나 망설여지기도 한다”고 전

제한 뒤 “관심이 부족해 학교 홈페이지의 게시글을 자주 확인하지 않는다”며 “참가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놓치거나 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김수진(사회학과 3)씨는 “학생들의 관심이 대체적으로 낮은 것 같다”며 “몇몇 프로그램에 참여해봤는데 생각보다 참여 학생수가 적어 놀랐다”고 말했다.

고영철(인문홍보학과) 교수는 “프로그램 내용이 매해 변함없이 진행돼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형식적인 면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학생들이 굳이 참여하지 않아도 인턴쉽, 서적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찾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이라며 “참신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생들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유주연 기자

학내 구성원 흡연으로 갈등 심화 캠퍼스 흡연구역 별도 지정해야

학교측 '흡연부스 설치' 논의중

‘국민건강증진법’과 그린캠퍼스 지정으로 학내 금연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명확한 흡연구역이 지정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내 구성원간 갈등이 빚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대학교 내 모든 건물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편익에 따라 환기 시설과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보건복지 부령이 정한 시설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한해 일정한 공간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흡연구역’이라는 표지를 반드시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전국의 대학들은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등 흡연구역 마련에 여러 방안을 찾고 있다. 하지만 우리대학 어느 곳에도 흡연구역이 마련되지 않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홍인기 총무과장은 “흡연 문제가 크게 공론화 되지 않아서 아직은 흡연부스 설치에 대해 논의 정도에 그치는 정도”라며 “어느 한 편의 의견만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4월29일 중앙도서관(관장 김홍수 통신공학과 교수)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도서관 전체가 금연 구역

임을 알렸다. 흡연자가 도서관 출입구나 엘리베이터 주변에서 흡연을 해 많은 열람실 이용자들이 담배연기와 냄새 등의 피해를 받는다는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는 중앙도서관 뿐만 아니라 제2도서관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도서관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나 흡연에 관해서는 학칙에 명시된 바가 없어 특별한 규제가 힘들다”고 말했다.

흡연구역에 대해 논란이 잦은 곳은 학생들의 왕래가 많은 단과대학 출입구나 휴게실 주변이다. 건물 내부가 금연이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는 곳에서 흡연을 한다는 흡연자의 논리와 학내 전 구역이 금연이라는 비흡연자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김석준(인문홍보학과 2)씨는 “학내 편의점에서 버젓이 담배를 팔고 있는데 금연구역이라고 흡연자를 내쫓는 것은 문제다”며 “건물 내부의 금연을 시행했으면 마땅히 흡연구역도 지정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송성운(행정학과 2)씨는 “법적으로도 흡연자의 흡연할 권리보다 비흡연자가 피해를 받지 않을 권리가 우선”이라며 “흡연구역을 지정해야한다는 말에는 동의하나 일부 이기적인 흡연자들의 흡연은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강수빈 기자

‘찾아가는 입시설명회’ 16일부터 열려

도내 22개 고등학교 대상

학생 일대일 상담도 운영

입학관리과(과장 김석건)는 16일부터 오는 6월20일까지 도내 22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입시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우수신입생을 모집하고 도내 고등학생들에게 제주대를 홍보하기 위해 실시한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입학사정관 전형 을 시행하지 않지만 일대일 상담은 유지된다. 상담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성격과 맞는 학과와 그 학과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수능에서 영어 과목의 A, B형 전형이 폐지되는 등 바뀐 2015학년도 입시전형 주요사항을 설명한다.

입시설명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5월 16일 표선고 △19일 대정여고 △20일 옹현고·서귀포고 △21일 제주일고 △22일 제주고 △23일 제주여고·중앙여고 △26일 신성여고 △27일 대정고 △28일 한림고 △29일 성산고 △30일 삼성여고 ▲6월 9일 애월고 △10일 함덕고 △11일 영주고 △13일 대기고·사대부고 △16일 세화고 △18일 중앙고 △19일 제주여상 △20일 중문고.

강서운 기자

2014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

석·박사 통합과정 등 총 159명

입학관리과(과장 김석건)가 2014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입생(특별전형)을 모집한다. 이번 모집에는 일반과정, 학·연협동과정, 학과간 협동과정에 석사과정 원생(91명), 박사과정 원생(56명), 석·박사 통합과정(12명) 등 총 159명을 모집한다.

지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가능하며 30일 오후 5시까지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ibsi.jejunu.ac.kr) 또는 유웨이 어플라이 홈페이지(www.uwayapply.com)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음악학과와 미술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는 6월 13일 오전 10시부터 모집단위별 학과사무실에서 면접고사를 실시한다. 단 음악학과와 미술학과는 각각 음악관과 미술관에서 오전 10시 실기고사를 먼저 치른다. 이어 오후 2시부터 면접고사를 시행한다.

합격자는 7월 4일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한편 2014년도 전형에는 석사과정에 풍력공학부, 석·박사 통합과정에 가정관리학과와 차세대융합과학기술 협동과정이 새롭게 신설됐다.

강수빈 기자



“교수님 감사합니다.” 15일 김대성(인문홍보학과 3)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이 김석준 사회과학대학장에 케네이션을 달아주고 있다. 강수빈 기자

제주대·JDC 공동발전 위한 업무협약

창의적 맞춤형교육프로그램 운영

제주대학교는 16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이사장 김한욱)와 상호 공동의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창의인재 양성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대학분부는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창의적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고용연계를 위한 현장실습, 취업알선, 일자리 박람회 등 각종 채용프로그램 운영에도 협력한다.

또 제주대 가족회사 지원 프로그램 확대와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입주기업과의 산

학공동연구 진행, 연구실과 공용장비 시설 활용 협력 등을 추진키로 했다. 백승규 기자

제주대학교 영상제 작품 공모

신문방송사 교육방송(JEBS·편성국장 조승재 통신공학과 3)이 제12회 제주대학교 영상제 작품을 모집한다.

JEBS는 오는 9월3일까지 ‘정춘’을 주제로 10분 내외 자유영상물을 공모한다.

전국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각 부문 수상자에게는 총장상과 상금이 주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JEBS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신문방송사 교육방송 ☎754-2284 김보라 기자

2014학년도 제2학기 제주대학교 교수초빙공고

1. 초빙분야 및 인원

대학(원)	학과(부)	채용분야	인원	비고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어음운론	1	
	철학과	사회철학	1	
경상대학	회계학과	관리회계	1	
	무역학과	무역운송론	1	
해양과학대학	지구해양학과	해양순환모델	1	
자연과학대학	화학·코스메틱스학부	화장품학	1	
	생활환경복지학부	아동학	1	
공과대학	에너지공학과	핵공학	1	
대학원	풍력공학부	대형풍력발전시스템설계	1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핵의학	1	
합계		10분야	10	

2. 지원 자격

※ 공통 및 분야별 지원 자격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공통 지원 자격

- 1)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2)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제주대학교 교수자격기준 연구실적환산율 산출기준」에 의거 교수초빙지원서 마감일 현재 교육·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3) 영어강의 가능자(채용 시 1개 강좌 이상 영어강의 의무 실시, 단 국어음운론 분야는 제외), 공개발표 시 참조

나. 분야별 지원 자격

- 1) 국어음운론, 사회철학, 관리회계, 아동학 분야
-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최근 3년(2011. 6. 1. ~ 지원서 접수일) 이내에 지원자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 2편 이상을 국제전문, 국제기타 또는 국내전문학술지에 발표한 자.
- 2) 무역운송론 분야
-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무역상무론 강의 가능한 자.
- 최근 3년(2011. 6. 1. ~ 지원서 접수일) 이내에 지원자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 2편 이상을 국제전문, 국제기타 또는 국내전문학술지에 발표한 자.
- 3) 해양순환모델, 화장품학, 핵공학, 대형풍력발전시스템설계 분야
-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최근 3년(2011. 6. 1. ~ 지원서 접수일) 이내에 지원자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 2편 이상을 국제전문학술지에 발표한 자.

4) 핵의학 분야

- 해당분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해당 전공분야 지도전문의 자격이 있거나 전임의 경력 1년 이상인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 최근 3년(2011. 6. 1. ~ 지원서 접수일) 이내에 지원자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 2편 이상을 국제전문, 국제기타 또는 국내전문학술지에 발표한 자.

3. 임용조건 등

2014. 9. 1. 자 교육공무원으로 임용 예정이며, 임용직명, 임용기간, 임용조건 등은 관계법령 및 본교 인사 관련규정에 의함.
* 국립대학 교원은 2011년부터 성과급제 연봉제를 적용하여 임용됨
* 채용 시 1개 강좌 이상 영어강의 의무 실시 (단 국어음운론 분야는 제외)

4. 심사기준 및 절차

: 본교 전임교원신규채용전형지침에 의함.

5. 제출서류

가. 채용분야 공통

- 1) 제주대학교 교수초빙 지원서(붙임서식) 1부.
- 2) 학력 및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원본 각 1부.
- 3) 외국의 박사학위 소지자는 한국연구재단의 박사학위 신고필증 반드시 첨부.
- 4) 경력증명서(교수초빙 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경력) 원본 각 1부.
- 5) 연구실적물 목록, 연구실적물 공동발표자 목록 각 1부(붙임서식).
- 6) 석·박사학위 논문 및 심사용 연구실적물 각 1부.
※ 논문은 게재일자, 권(호), 게재호, 페이지가 부여되어 출판된 학술지만을 인정함.

나. 채용분야별 제출서류

- 1) 핵의학 분야
- 전문의 자격증 사본 1부.
- 지도전문의 자격증 사본, 전임의 경력증명서 원본 중 1부.

2) 기타 교수 초빙공고에서 제출토록 하는 사항

6. 지원서(서류포함) 접수

가. 접수기간 : 2014. 5. 27.(화) ~ 5. 30.(금),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나. 접수처 : 제주대학교 교무처 교무과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지원 서류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나. 제출 서류의 작성은 교수초빙공고에 게시된 「지원서식 및 구비서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다. 교수초빙지원서, 연구실적 목록, 연구실적물 (공동)발표자 목록은 교수초빙공고에 게시된 서식을 내려 받아 활용하시기 바라며, 연구실적물 인정범위 등은 붙임 「제주대학교 전임교원신규채용 전형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라. 경력(제직) 증명서는 교수초빙지원서에 작성한 임명기관장이 발급한 증명서 원본만 인정하므로 반드시 임명기관장이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외국어로 작성된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지원자 본인이 날인 또는 서명한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함.

바. 2개 이상의 분야에 복수지원할 수 없음.

사.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본교 인사 관련규정에 의함.

아. 지원서식 및 구비서류 작성요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서류 및 연구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지원서식 및 구비서류 작성요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본교는 책임지지 아니함.

자. 지원서 허위기재 및 제출서류 위조는 임용 후에도 확인될 경우 임용을 취소함.

차. 심사결과는 해당자에게만 통지함.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교무과(☎(064)754-2013~5, Fax(064)755-6204)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2014. 5. 1.

제주대학교 총장

http://www.jejunu.ac.kr
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항로 102

사설

대학생 유권자와 6·4 지방선거 참여

6·4 지방선거일 이전인 오는 5월 30·31일 이틀간 주소지로 가지 않고도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새로운 풍속도가 선거 사상 처음으로 이뤄진다. 기본적으로 이런 움직임은 대학생들의 투표를 제고를 위해 참신하고 바람직한 아이디어다. 지난 13일 우리대학 학생회관 로비에서는 총학생회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사전투표제’ 체험행사를 열었다. 학생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며, 체험행사 참여도 활발했다고 한다. 이 행사는 새로 도입된 ‘사전투표제’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학생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실시됐다. 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는 일반 시민에게도 광범위하게 번져 있는 현상이지만, 특히 대학생을 비롯한 젊은층의 투표 포기 경향은 투표율을 더욱 저조하게 만들었다. 대학생들이 막상 선거일에 관내 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당연히 사전투표제도의 실시로 불편이 감소되면 대학생들의 투표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거에는 대학생들의 정치적 역량이 높게 평가받던 시절이 있었다. 한국사회에서 대학생들은 변혁의 주체로서 정치변동의 중심에서 있었다. 1960년 4·19혁명,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등의 주역으로 활동하면서 민주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제주대 학생들의 민주화 운동도 주목받을 만하다. 1960년 5월 제주대학생 6명이 ‘4·3사건 진상규명동지회’를 결성해 실태조사를 벌이다 이듬해 계엄군에 연행돼 고초를 치르다가 하면, 1985년 2월 광양초등학교 유세장에서의 시위, 1985년 5월 광주민중항쟁 진상규명 요구, 1986년 12월 민정당사 화염병 투척사건, 1987년 4월 총여학생회의 ‘4·3대자보사건’ 등 1980년대는 민주화 투쟁의 정점을 이룬 시기였다. 그 후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0년대에 밀려닥친 경기침체, 취업난 등으로 대학생들이 정치참여에 무관심해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젊은 세대의 정치 무관심 그리고 선거에서 나타나는 낮은 투표율은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민주화를 견인해 온 학생운동이 거의 사라지고 청년 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면서 대학생 유권자들의 정치적 관심과 정치참여 의식이 점차 약해지는 현상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된 것 같다. 하지만 선거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제도이고 국민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다. 또한 민의의 소재를 가늠하는 준거가 된다는 데서 모든 대학생 유권자가 포기해서는 안 될 소중한 주권행사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학생 유권자들의 정치적 무관심 즉 탈정치화는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공고화에 커다란 위협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지금의 대학생인 20대가 30대, 40대로 성장하면서 정치적 무관심이 지속될 것인지는 미지수이지만, 정치과정에 대해 초기학습이 이뤄지는 대학생들의 정치적 무관심이 고조되면 향후에도 탈정치화가 점점 심화될 여지는 충분하다.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통한 학습은 성숙된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치의식을 양성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대학생은 세상을 이끌어 나갈 ‘미래 권력’임에 틀림없다. 미래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첫 발걸음은 당장 눈 앞의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정치권의 개혁을 부르짖어야 할 세대가 막상 투표에는 참가하지 않는다면 이처럼 모순된 일도 없을 것이다. 학생들이 정치사회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제주대신문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발행인·총장 허형진	편집인·주관 최낙진	편집국장 강경태	
우)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전화안내 064)754-2114	
제주대신문 편집국 064)754-2277-9		제주대미디어<JUMP> news.jejunu.ac.kr	

냉난방기 통합관리로 에너지 절약

가동·정지 등 각 건물 원격으로 제어 가능

냉난방기의 손상과 보수기간을 줄이기 위해 교내 냉난방기 통합관리가 5월부터 추진되고 있다.

시설과(과장 직무대리 강수철)는 4월말부터 냉난방기 통합관리 시스템 계약을 추진했다. 현재 각 단과대학 건물을 중심으로 우선 냉난방기 2600대가 통합관리 대상이다.

시설과는 지난 4월 사라캠퍼스를 포함한 대학 내 냉난방기 현황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당시 조사에서는 연구실의 냉난방기가 전부 파악되지 않아 향후 냉난방기 전수조사 용역을 통한 현황관리를 할 예정이다. 또한 잔여 냉난방기 통합관리는 예산을 확보해 2015년부터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냉난방기 통합관리 시스템은 시설과에서 모든 냉난방기를 가동·정지 할 수 있는 종합관리방식을 말한다. 통합관리 시스템은 각 건물의 냉난방기 전력 사용량과 최대전력량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다.

통합관리 전 냉난방기의 관리는 각 학과와 부서에서 나눠 관리했다. 기존 관리 방식은 변전실에서 전기를 일괄적으로 차단하는 ‘전력피크 제어 방식’을 통해 냉난방기를 제어했다. 전력피크제어 방식은 신속하게 전원 제어가 가능하지만 냉난방기가 전력차단으로 제어돼 고장의 주요 원인이 된다.

김중훈 시설과 주무관은 “빠르게 움직이던 기계가 급제동하면 손상

이 생기는 것처럼 냉난방기 또한 전력차단으로 갑작스럽게 작동이 멈추면 기계에 무리가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진 중인 통합관리는 전력을 차단하지 않고 각 냉난방기에 순차적으로 신호를 보내 관리한다. 신호를 받은 냉난방기는 ‘냉방→송풍→냉방’으로 작동돼 서서히 전원을 조작한다. 이는 기계의 고장 및 손상을 예방하며 기계가 꺼지지 않고 송풍으로 전환돼 실내의 냉기유지에 유리하다.

또한 각 냉난방기의 유지보수·설치관리 또한 전문기술을 가진 시설과 직원이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고장 발생시 우선 조치를 취한 다음 비용 정산을 할 수 있어 보수기간이 단축된다.

박소연 기자

중앙도서관 자료기증 안내 자료 수에 따라 각종 혜택

중앙도서관(관장 김홍수 통신공학과 교수)이 소장가치가 있는 자료 기증을 받기위해 교내외 개인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기증을 원하는 자료는 단행본, 도서관 소장 자료 중 연속성 자료(연감, 연보, 총서 등)의 결호, 연속간행물 중 도서관 소장 자료의 결호, 3년 이상 결호없이 수집된 미소장 연속간행물 등이다.

10권(10만원) 이상 50권(50만원)미만 기증자부터는 기증 내역이 명시된 도서관 감사장이 수여되며 1000권(1000만원) 이상 기증자는 도서관장 감사장, 명판, 기념품, 기증목록 홈페이지 게재 등 추가적인 예우를 받는다. 기증은 방문이나 우편으로 가능하다. 문의=중앙도서관 서서정리과 ☎754-2204, 2206 강경태 기자

학생생활관, 방학특별개관 오는 30일까지 입주신청

학생생활관(관장 김봉에 생활한경북지학부 교수)은 6월29일부터 8월26일까지 총 59일간 하기방향 특별개관을 한다. 입주기간은 계절수업기간(6월29일~7월21일)과 전체기간(6월29일~8월26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재학생, 복학예정인 휴학생, 국내·외 교류수학생, 수료연수생 등이 해당된다. 입주 우선순위는 현재 입주 중인 학생, 재학생, 교류수학생 순으로 선발된다.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하영드림미(<http://dreamy.jejunu.ac.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단 수료연수생의 경우 별도양식으로 이메일(jnudorm@jejunu.ac.kr)로 신청해야 한다. 문의=학생생활관 ☎754-2251 전지민 기자

간호대학, 제15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개최

15일 간호대학 강당서 열려

간호대학(학장 박은옥 간호학과 교수)은 15일 간호대학 강당에서 ‘제15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가졌다. 이 행사는 2000년부터 해마다 열리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임상 실습을 앞둔 간호학과 3학년 학생 68명이 참가했다.

나이팅게일 선서식은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간호정신을 이어받고 간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의식이다. 학생들의 가족과 친구들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의식을 시작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선서식에 참여한 박준영(간호학과 3)씨는 “간호대학에서 가장 큰 행사의 주인공이 되니 새삼 설레고 선서를 통해 책임감이 커졌다”며



15일 간호대학 강당에서 간호학과 3학년 학생들이 제15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에서 가족과 친구들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실습을 하면서나 간호사가 돼서도 지금의 마음가짐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서식이 끝난 후에는 윤소라(간호학과 3)씨가 제주특별자치도 간호사회 장학금을 받았다. 또 박

김보라 기자

법전원, 중서남정법대 민상법학원과 교류협정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고호성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16일 원장실에서 중국 서남정법대학 민상법학원(원장 조만일)과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정을 통해 연구 및 학술교류와 유학생 교류 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협정식에는 양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해 새로운 인연을 축하했다. 제주대 법전원은 이번 협정을 계



기로 국제법무를 더욱 활성화 할 계획이다. 강경태 기자

임미숙 상무 리더십 특강

WISET 제주지역센터(센터장 도양희 전자공학과 교수) 주최로 여성과학기술인 임미숙 KT 경제경영연구소 상무가 15일 교양강의실에서 특강을 했다.

‘Mobile & Smart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을 주제로 한 이번 강연에는 이공계 대학생 40여명이 참여했다. 임 상무는 기업에서 실제 이뤄지는 경영 위주의 강연을 해 많은 호응을 받았다. 박소연 기자

2014 춘계학술대회 열려

2014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 춘계학술대회가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국제교류회관에서 열렸다. ‘사물인터넷 시대의 지형공간정보’를 주제로 열린 이 대회는 김민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의 초청강연을 시작으로 이재웅 국토연구원 박사의 ‘사물인터넷 시대의 적용, U-City’, 박태식 테이즈엔지니어링 사장의 발표를 가졌다. 16일에는 학술투어가 이어졌다. 강수빈 기자

제12회 탐라스승상 수상

강창희(화학·코스메틱학부) 교수

강창희(화학·코스메틱학부)교수가 제33회 스승의 날을 맞아 제12회 탐라스승상을 수상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홍남호 서귀포산업과학교 교감)는 지난 14일 스승의 날 기념식을 대신해 탐라스승상 수상자들을 회의실로 초청해 시상식을 가졌다.

탐라스승상은 2003년부터 제주교육 발전에 공헌하고 행적이 사회에 귀감이 되는 훌륭한 스승에게 주어진다. 교원의 사기를 높이고 교원의 표본을 확립하기 위해 제주교총에서 매년 시상하고 있다.

강창희 교수는 “제주대학교에서 23여년간 학생을 가르치면서 교육자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상을 받았다”며 “더 큰 봉사와 노력으로 교육과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정민선 기자

태권도 금1·은1·동1 획득

전국대학태권도 개인선수권대회

체육학부 태권도부(지도교수 양명환 체육학부 교수)가 지난 14일부터 4일간 전남 영광군 영광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41회 전국대학태권도 개인선수권대회에서 금1, 은1, 동1 등 3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대회 여자대학생부(-62kg급)에 참가한 양지원(체육학부 4)씨는 결승에서 유정민(전주대)을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임동민(체육학부 4)같은 체급의 김소라(체육학부 3)씨는 준결승에서 아쉽게 패해 동메달을 획득했다.

남자대학생부(+87kg급)에 출전한 임동민(체육학부 4)씨는 결승에 진출했으나 황성재(우석대)에게 패해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강경태 기자



양지원(체육학부 4)



김소라(체육학부 3)



임동민(체육학부 4)

운전면허

제주대학교 발전후원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매일 학원 자체 운전면허 시험 실시

▶제주시 전지역 셔틀 운행 : 제주대↔학원 셔틀 운행

▶주말교육가능

▶제주여고입구 건너편(다리)↔학원셔틀버스 운행

↑시정

←제주여고

↓제주대

↑학원

→아라중

제주시 아라2동 1320(제주여고 입구 동쪽)

☎ 755-9900

“시인·소설가 등용문” 제34회 백록문학상 현상 공모

제주대신문이 창간 60주년을 맞이하여,

제34회 백록문학상을 현상공모합니다.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응모자격 :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학생

2. 응모분야 : 시(1인 5편 이상)
단편소설(1인 1편)

3. 접수마감일시 : 2014년 6월 23일(월) 18:00까지

4. 접수장소 : 신문방송사 행정실(취업전략본부 3층)

*백록문학상 응모시 출력 원고를 동시에 접수하며, 반드시 원본파일을 E-mail : press@jejunu.ac.kr로 제출해야 함.
*원본파일은 본인 이름과 학과 등의 파일명으로 제출바랍니다.

5. 발표 : 제주대신문 919호(2014년 7월 16일(수) 발행 예정)

6. 시상내역 : 시 당선작 - 상금 50만원 및 총장상
단편소설 당선작 - 상금 70만원 및 총장상

*당선작이 없을 경우 가작을 선정할 수 있으며, 가작 상금은 당선 상금의 절반으로 함.

제주대신문

제주대학교 김창인 실천철학 연구소에서는 김창인 실천철학을 기초로 한 자신의 삶과 미래에 대한 비전 및 실천에 관한 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김창인 실천철학을 토대로한 창의성과 실천정신이 생생하게 드러나는 글을 기대합니다.

다 음

1. 주제 : 김창인 실천철학과 나의 인생, 나의 인생

2. 응모자격 : 제주대학교 재학생

3. 분량 : A4용지 5매 내외

4. 시상내역(상장 및 상금)

- 최우수상 : 50만원 (1명) - 우수상 : 30만원 (2명) - 장려상 : 20만원 (3명)

5. 공모기간 : 2014년 05월 30일까지

6. 결과발표 : 2014년 6월 20일 (김창인 실천철학연구소 사무실 앞에 게시 및 수상자에게 개별통보)

7. 기타 : *응모자에게는 김창인 실천철학연구소 사무실에서 실천철학 책자 및 원고작성요령을 배부

*응모작 수준에 따라 수상작이 없을 수 있음

*접수된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음

8.문의 : 제주대학교 김창인 실천철학연구소(문화교류관/박물관 1층)

☎ 064-754-8278, HP 010-3699-3210

김창인실천철학연구소

교수시론



김진우
의학과 교수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교훈을 묻고(問) 책임 노력을 가슴에 묻어(埋) 아픔으로 한결 더 성숙해지길 간절히 바란다”

세월호 사건 이후 우리 사회는 함께 슬퍼하고 분노하고 무기력해하며 한 달여의 시간을 지나왔다. 다시금 애기를 한다는 것이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를 다시 만지는 것 같아 어렵지만 학생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글을 시작한다.

2014년 4월 16일은 충격과 슬픔에 온 국민이 압도된 시간이었다. 배를 두고 먼저 달아난 선장과 선원, 구조과정에서 보인 해경의 실망스러운 모습은 슬픔보다 더 한 분노를 일으켰다. 시간이 지날수록 드러나는 해운업체의 비리와 배후, 체계적이고 확실하게 구조 및 재난 대응을 하지 못하는 해경 및 중앙재난대책본부와 정부의 행태는 이 문제에 우리가 어디까지 분노하고 대응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까지 몰고 갔다. 다양한 보도매체와 각 계층의 목소리로 인한 지식과 정보는 넘쳐나지만 국민의 염원에 합하여 공감하고 소통하는 진실은 턱없이 모자라 보인다.

세월호 사건의 정황을 분초 단위로 재구성해보면 이것은 인재였음이 드러난다. 세월호는 일본에서 노후된 선박을 사들여 107명의 승객을 더 실을 수 있도록 개조됐다. 또한 엄청난 과적 초과물을 싣고 다녀도 제재하지 않는 공무원과 배의 안전 상황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고 운항하도록 허가한 고위간부들. 이 모든 일들을 엄청난 모비자금을 들어 진두지휘한 선주와 해운업체, 대주주가 그 뒤의 배경이다. 바다 속에서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은 아이들은 단 한 명도 구

세월호 사건을 돌아보며

해내지 못했고, 인재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에게 지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편조차도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현주소이다.

인제부터인지 우리 사회는 경제적 효용가치 외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어색한 곳이 됐다. 아니 어쩌면 경제와 정의를 결합하는 것이 어색한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세월호와 함께 침몰한 생명들은 경제적 생산성이나 계량화된 모든 효용성보다 훨씬 더 소중한 합구적인 가치로 자산이다.

우리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경제적 가치를 절대로 우선에 두지 말았으면 한다. 더 많이 소비하는 것에 행복의 기준을 두지 말기를 당부한다. 무책임하고 부당한 권력을 사용하는 관리자들을 쉬이 허용하지 말고, 능력에 부치는 일의 책임자가 되는 엄중한 무게를 기억하고 고결하고 지혜롭게 버려야 한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우는 자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의 슬픔과 아픔도 유의하여 보고 보살피는 소박하고 따뜻한 이웃이 되기를 부탁한다.

일본 도쿄 해양대학교의 와타나베 교수는 “침몰 원인은 이미 인천항을 출발할 때부터 있었다”고 한 매체를 통하여 밝힌 바 있다. 그가 보인 실험에서 세월호의 침몰 원인은 무리한 중축과 과도한 화물적재임을 시사했다. 밀정하던 배가 갑자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원래가 문제가 많은 선박이라는 것이

다.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던 세월호의 진실을 넘어 선장과 선박직 승무원들이 끝내타임을 허비했다는 점에 국민들은 더욱 분노했다. 그들은 승객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대비 안전 매뉴얼을 무시했다. 영업 이익 극대화를 위해 승객의 안전을 가볍게 여기고 회사의 과실여부를 감추는 데만 급급해 승객 구조 활동을 위한 어떤 행동도 없었던 승무원의 뒷모습은 처음부터 끝까지 안타깝기 그지 없다. 탈출한 15명의 선장과 선원들 중에는 ‘아는대로’ 승객 구조 활동을 위해 노력한 자는 없으며 평소의 불법과 무자비함을 자행 ‘하던대로’ 신속하게 탈출한 선장과 선원, 해운업체만 남았다.

세월호 사건을 통해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들만 문제 제기를 하여도 그 문제를 해결 가능하기 어렵고, 또 우리 사회의 깊은 곳까지 부패하도록 방치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망함을 느낀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와 노력이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 학생들도 상식을 아는대로 실천하는 자들이 되길 바라고 그것이 영속적으로 이어져 위기 상황에서 평소의 하던대로 문제를 해결해 가길 바란다. 평온한 일상 중에 단련된 성숙한 가치 판단 기준과 일치된 습관은 중요한 판단의 기로에 선다고 할 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교훈을 묻고(問), 책임의 노력을 가슴에 묻어(埋) 아픔으로 한결 더 성숙해지길 간절히 바란다.

흐르는 강물처럼

동문칼럼



강대심
초등교육과 82학번
주치초 교무부장

‘2014년이 더욱 미안한 것은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어린 세대로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점이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20대의 나’는 왜 사는지 삶의 의미를 몰랐다. 무기력하고 비참했으며 인생이 재미 없었다. ‘50대의 나’는 날마다 감사했다. 내게 다가오는 모든 일을 받아들이고 내가 느끼는 평화를 주변에 나눠주고 싶었다.

강물의 시작은 약한 물줄기들이다. 어디로 어떻게 흐르고 어떤 강이 될지 알 수 없는 시냇물은 그냥 흘러갈 뿐이다. 이 물줄기들이 모여 계곡물이 된다. 때론 폭포가 되어서 아래로 흘러가기도 한다. 이윽고 강이라는 이름으로 흐르기 시작하면서 서 비로소 모든 소음과 불확실함과 조그함을 모아 천천히 천천히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

20대는 강물의 어디쯤일까? 아직은 계곡물일 것이다. 아무 것도 알 수 없는 불확실함의 미래를 위하여 지금 모든 것을 견뎌야 하는 불안한 나날이 흐르고 있는 물이다. 강이 되어 흐르기 시작하면서 물은 넓어지고 안정되고 굽이굽이 돌아가긴 하나 분명한 목적지가 있고 주변의 풍광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겉으로 보이는 강의 풍경일 뿐이다. 멀리서 보이는 강물은 고요해 보여도 강물 속으로 들어가 보면 보이는 것처럼 평화롭지만은 않은 거센 물살과 만나게 된다. 하류로 갈수록 강물은 넓게 얇게 천천히 흐르면서 주변을 기를지게 하고 목적지인 바다에 이른다. 이 바다는 모든 사람이 꿈꾸던 성공일까. 혹은 꿈일까. ‘성공신화’라는 말처럼 ‘성공’이라는 말은 실체도 없으면서 삶을 지배하다가 결국 쓰라린 실패감을 느끼게 하는 말이다. ‘성공한 기업가’가 ‘부도덕한 범죄자’로 바뀌기도 하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고시에 성공해도 탐욕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꿈꾸는 성공은 일회적인 일상에 쏠려 있는 말일 뿐이다.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말이 있다. “나는 꿈이 뭐니?” 꿈에 대한 대답은 매일매일 바뀌곤 하는 ‘직업’이 되곤 한다. 직업은 꿈이 아니다. 직업은 꿈을 이루기 위하여 거치는 과정일 뿐이다. 꿈을 꾀다는 것은 지금이 섣망 비루하고 자존심 상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지더라도 혼자 웃을 수 있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자기만의 공간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담당할 수 있는 자산이 된다.

강물이 바다에 이르는 것은 성공이 아니다. 조그만 물줄기가 모이고 모이는 과정이 성공이고 바다를 향해 씩 없이 흐르고 흐르는 것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바다에 도달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닌, 바다와 함께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을 지닌 또 다른 세상이 되는 것이 바로 강물이 꾸는 꿈이다. 교사가 되고, 공무원이 되고, 농부가 되는 것은 직업이고, 그 직업을 통하여 어떤 삶을 만들어갈 것인지, 세상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찾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꿈이다.

20대에 고민하던 ‘왜 사는가?’를 ‘어떻게 살 것인가?’로 바꾸면서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작은 것들이 ‘성공’이 됐다. 이미 지나 온 과거도 내 것이 아니고, 앞으로 만나게 될 것들도 지금 내 것이 아니므로 ‘지금 여기서 내가 하는’ 것들만 ‘성공’하면서 ‘주변에 도움이 되는 평화로운 노년’이 되기를 꿈꾼다.

나는 지금 강물의 어디쯤을 흐르고 있을까? 종류에서 하류를 향하여 흐르고 있을 것이다. 누구도 혼자서 위대함을 만들어낼 수 없고, 특별한 삶처럼 보여도 결국 우리 모두는 함께 흐르는 강물일 뿐이다. 강물은 흐르는 이유를 묻지 않는다. 다만 흘러갈 뿐이다.

여러분의 독자 의견·투고를 받습니다

원고 보내실 때 이름, 학과, 연락처를 기입해 주십시오.

게재된 원고에 한해 원고료 2만5천원을 드립니다.

☎064)754-2277 ~ 2279 이메일 press@jejunu.ac.kr

독자기고



오승수
국어국문학과 4

어떤 사람들은 흥을 돋우기 위해 노래를 부른다. 가수나 뮤지컬 배우들은 관객들을 위해 노래를 부른다. 축구나 야구 같은 스포츠 경기에서 팬들이 응원가를 부르며 자신이 좋아하는 팀이 이기기를 기원하기도 한다.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정말이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여기에 덧붙여서 노래를 통해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본다. 여기서의 구원은 난세(亂世)속에서 영웅이 등장하길 바라는 심리와는 살짝 거리가 있다. 힘든 상황이 닥쳐도 긍정과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원동력을 주는 것만으로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고 난 생각한다.

2011년 봄, 미국 위스콘신 주의 길거리엔 신기한 광경이 연출되었다.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다. 그것도 1년 내내 말이다. 위스콘신 시민들은 새로 당선된 주지사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목살을 앓았다. 주지사 스캇 위커가 제출한 법안 하나 때문이었다. 위커는 주 예산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공공 분야 노동자들의 기본 노동권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예산법을 제출했다. 교육 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 그러나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감세 정책에는 거의 손도 대지 않았다.

수많은 시위와 반대의 움직임이 어마어마했지

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지사의 그런 정책에는 변화가 없었고 외려 완철시켜버렸다. 정책이 바뀌길 기대하며 시위를 했던 많은 사람들은 맥이 풀려버렸고 거의 자포자기 상태로 되면서 시위가 흐지부지 되기 일보직전이었다. 그때 시위를 하던 시민 중 한 사람이 기타를 번쩍 들더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우리 승리하리라’, ‘이 땅은 우리들의 땅’ 같은 가요였다. 그가 한 시간 가까이 노래를 불렀는데 신기하게도 몇몇이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따라 부르는 인원은 점점 늘어났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노래를 부르는 그들의 표정에는 힘든 기색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정책이 바뀌진 않았지만 바뀔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그들은 노래를 불렀다. 즉, 노래를 부르는 백여명의 사람들은 노래라는 것에서 힘과 희망을 얻었던 것이다. 그것이 그들에겐 구원이란 빛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1년 내내 매일 거리에 나와서 노래를 불렀던 그들의 행위를 설명할 수가 없다.

사람들의 마음에 파스함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도 구원의 한 종류이다. 가끔 몸이 힘들 정도로 어떤 무언가에 열중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올 때가 있다. 술 같은 것에 의존하고 싶은 욕구도 많았지만 그저 의자에 앉아 창밖을 보며 편안하게 음악을 듣는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멜로디를 흥얼거리다. 그 순간이 너무 편안하고 안락했다. 종전까지 너무 힘들었지만 그때에 비로소 구원을 받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 내가 음악을 들으면서 세상이 아직 밝다고 느낀다면 그것이 야말로 진정한 구원이 아니겠는가?

영원한 사랑이란 존재하는가

김한지
사학과 1

20대 여자라면 한번쯤 봤을 법한 영화 시리즈를 하나 말해볼까 한다. 바로 ‘비포 선라이즈’와 ‘비포 섀넬’ 그리고 ‘비포 미드나잇’이다.

영화속 이야기로 잠시 들어가보자. ‘비포 선라이즈’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남녀 주인공은 유럽 기차 안에서 처음 만나게 된다. 그리고 제시가 비엔나 역에 내려게 되면서 둘의 인연은 짧은 만남으로 끝나는 줄 알았지만, 제시는 다시 기차에 올라 셀린에게 비엔나 마을을 둘러보자는 제안을 한다. 셀린은 제시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그렇게 둘만의 비엔나 여행이 시작된다. 둘은 조금씩 서로에 대한 감정이 애뜻하게 변해가기 시작했다. 이 여행이 끝나면 서로 연락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둘은 사랑에 빠져 6월 16일 이후의 6개월 후 비엔나 역 9번 승강장, 저녁 6시에 만나기로 약속하고 헤어진다. 하지만 그들은 만나지 못한 채 9년이라는 시간이 흐른다.

그렇게 ‘비포 섀넬’이 이어진다. 9년 후, 작가가 된 제시는 출판 홍보를 하러 파리에 온다. 한 서점에서 그는 셀린을 만난다. 제시는 미국으로 가기 전 남은 시간동안 셀린과 파리를 거닐며 그들의 이야기를 풀어간다. 9년간의 공백 동안, 제시는 결혼을 해서 아들까지 있는 유부남이 됐고 셀린은 환경단체에서 일하는 열정적인 여성이 됐

다. 이제 그들은 20대의 열정적인 모습이 아닌 30대의 현실적인 모습이 됐다. 그들이 헤어지기 전 셀린은 제시를 자신의 아파트에 초대를 해서 자신이 직접 작곡한 노래를 들려주게 된다. 제시는 엉덩이를 귀엽게 찔룩거리며 노래를 하는 셀린을 보면서 함박웃음을 짓게 되는데, 이 장면에서 우리는 제시가 미국행 비행기를 타지 않고 결국 프랑스에 남아 셀린과 이어진다는 걸 짐작할 수 있다.

영화는 ‘비포 미드나잇’으로 이어진다. 제시와 셀린이 함께하면서 귀여운 쌍둥이를 얻게 되고 휴가로 그리스로 향한 그들의 모습을 그린다. 기차에서 만난 사랑이 동화처럼 아름답고 행복할 것만 같았지만 동화는 동화였고 현실은 현실이었다. 셀린은 제시가 헨리(제시의 아들)가 걱정되고 안쓰러워 미국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 하는 것이 맘에 들지 않았다. 이로 인해 둘의 싸움은 커졌다. 셀린은 제시가 자신에게 열정적이고 사랑을 주길 바랬을 것이다. 하지만 셀린에게 현실은 냉혹했고 여자로서 사는 것에 대한 파곤함마저 느끼게 했다. 큰 싸움 후, 제시는 셀린에게 충고를 하며 영화는 막을 내린다.

영화 시리즈 3편을 다시 보면서 생각하게 된다. 영원한 사랑이란 존재하는 것일까? 젊었을 때는 열렬하게 사랑했지만 점차 나이를 하나씩 먹으면서 현실과 타협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식어버린 열정이 일상으로 변하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사랑이라는 감정은 있거나 한 것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시가 노력하는 모습에서 작게나마 믿어보려 한다. 이젠 상상 속에서 나와 현실을 직시할 때마다.

제주대학교직장예비군연대 공고2014-1

2014년도 예비군훈련 공고

2014년도 예비군훈련(향방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2014. 04. 21

제주대학교총장

1. 훈련기간 : 2014. 6. 24(화)~ 7. 3(목)(토, 일요일 제외)
2. 장 소 : 제92해병대대 예비군훈련장(제주시)
3. 훈련대상: 전역1~6년차 편상자 전원(계급구분 없음)
4. 교육훈련일자 및 학급편성

일자	대학별	학 과 별	인원(명)	계합인원(명)
6. 24 (화)	해양과학대학	전 학 과	360	378
	수익과대학	수익학과 / 수익예과	18	
6. 25 (수)	사범대학	전 학 과	171	355
	생명자원과학대학	전 학 과	184	
6. 26 (목)	자연과학대학	전 학 과	254	363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 행정학과(야)	105	
	간호대학	간호학과	4	
6. 27 (금)	공과대학 B	전기공학과 / 전자공학과 / 생명화학공학과 / 컴퓨터공학과	245	327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 언론홍보학과	82	
6. 30 (월)	공과대학 A	건축공학과 / 건축학과 / 기계공학과 / 식품생명공학과 / 메카트로닉스공학과 / 통신공학과 / 에너지공학과	391	365
	인문대학	전 학 과	213	
7. 01 (화)	법정대학	전 학 과	22	323
	예술디자인대학	전 학 과	65	
	교육대학	전 학 과	23	

일자	대학별	학 과 별	인원(명)	계합인원(명)
7. 02 (수)	경상대학 A	경영정보학과 / 무역학과 / 회계학과 / 회계학과(야)	218	398
	대학원/의과대학	전 대학원 / 교수 / 의과대학	180	
7. 03 (목)	경상대학 B	관광경영학과 / 경영학과 / 경제학과 / 관광개발학과(야) / 관광경영학과(야)	335	335
	총 계			2,844

※ 교육훈련대상자 명부 (소속대학 학부(과) 열람)

5. 유의사항
가. 훈련은 소속대학별 훈련 해당일자에 제주시 연동 정실훈련장으로 참석 바랍니다. (불참자는 보충교육 참석. 단, 보충훈련 장소는 대정읍 모슬포(91해병대대)입니다)

나. 훈련 당일 09:00까지 시간엄수 개별입소
※ 지각자 처리 기준 : 30분 이내 1시간 추가, 30분 이후 입소불가

다. 중식 제공(도시락) 지참자는 중식비(6,000원) 지급 및 교통비(4,000원)지급
※ 단체 도시락은 반입 할 수 없음(식중독 발생 우려)

라. 예비군복 착용(규정된 복장 착용)

마. 신분증(주민등록증, 학생증, 운전면허증), 필기구 반드시 지참.

바. 정당한 사유(실소)로 인하여 훈련연기 및 훈련일자 변경을 원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2014. 6. 13일(금)까지 예비군연대에서 연기 신청 바랍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비군연대(구내754-2288~9)로 문의 바랍니다. 끝.

세계를 향한 국내 유일의 제주대학교 대학원
풍력공학부에서 우수인재를 선발합니다

풍력발전분야의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2014학년도 후기 제주대학교 대학원 풍력공학부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모 집 인 원	• 석사과정 00명, 박사과정 0명 (특별전형)
모 집 학 과	• 석사과정 : 풍력공학부 (풍력기계시스템전공, 풍력전기·제어시스템전공, 풍력해양·토목공학전공)3개 전공 • 박사과정 : 풍력특성화협동과정
지 원 자 격	• 전공구분 없음(공학계열·인문사회계열 등)
원 서 접 수	• 2014. 5. 27(화) 10:00 ~ 5. 30(금) 17:00 •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http://ibsi.jejunu.ac.kr) 입학원서 접수 대행사 (http://www.uwayapply.com)
면 접 시 험	• 면접고사: 2014. 6. 13(금) 10:00 ~
특 전	• 석·박사 월 70만원 장학금 지원 • 우수 대학원생에게 국외 우수대학 학점교류 지원금 지급 (유럽 : 알브고대학(덴마크), 델프트공대(네덜란드) 미국 : 미정, 일본 : 아사카가 공대 등) • 우수 대학원생에게 국내외 인턴십 지원금 지급 (한국남부발전, 한국전력, 두산중공업, 효성중공업, 네덜란드 ECN, 독일 Lahmeyer, 영국 Lomax 등)
졸업 후 진로	• 한국남부발전, 대림산업, 효성중공업, 대한전선, 한국전력 등 국내 대기업 및 국가 공기업(풍력대학원 석·박사 졸업생 취업 자료에 근거함)
선 발 방 법	• 본 과정은 면접으로 합격자 선발 (TOEIC 700점에 상응하는 영어성적소지자를 우선 선발함)
문 의 처	• 제주대학교 입학관리과 (064)754-3991 • 대학원 풍력공학부 사무실 (064)754-4400 • 홈페이지 : 풍력특성화대학원 (http://gwe.jejunu.ac.kr)

제주대학교 대학원 풍력공학부

사제간 TALK 스승과 제자의 '생각 공유하기'

“교육을 떠나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야”

강동식 물리교육과 교수

▶가장 기억에 남는 제자는.

“교수라는 직업 특성상 매년 새로운 제자들을 만나고 떠나보낸다. 그러다보니 스스럼없이 다가오는 학생들이 항상 기억에 남는다. 과거에 무척이나 소극적이던 제자가 있었다. 좀처럼 학과에 적응하지 못하고 항상 풀이 죽어있어 종종 상담을 해줬다. 이후 그는 점점 변했고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게 됐다. 그 제자는 학회장을 맡기도 하고 여러 활동을 겸했다. 시간이 지난 뒤 그가 날 찾아왔다. 놀랍게도 훌륭한 파일럿이 돼 있었다. 반갑게 얘기를 나누며 내 덕택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무척이나 기뻐다.”



▶바람직한 사제 간의 관계란.

“단순히 교육을 떠나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요할 때는 부모 이상으로 따듯하게 지도를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것이 스승이다. 수업만을 강조한다면 올바른 사제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때로는 엄격하지만, 때론 모든 것을 벗어나 인간적으로 만나는 것이 사제관계다.”



▶제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요즘 학생들은 책을 너무 읽지 않는다. 설사 책을 읽더라도 가벼운 주제의 책만을 고집하곤 한다.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서적을 읽었으면 한다. 대학을 마치고 사회로 나가면 읽고 싶은 책이 있어도 읽을 시간이 없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길 바란다. 그리고 나이든 교수들과 어울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한다. 교수들은 항상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지식을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어 하니까.”

강수빈 기자

“스스로 배우며 자기만의 스승 찾아내길”

유철인 철학과 교수

▶스승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같은 전공의 학생이었는데 학술회나 세미나에서 날 알게 됐다며 손으로 쓴 편지를 보냈었다. 편지에는 ‘학문을 대하는 자세’를 배웠다는 말이 적혀 있었다. 스승이라는 것이 따로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따로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이 누군가를 스승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학생들이 자기만의 스승을 잘 찾아내길 바란다.”



▶스승이 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만큼이나 제자들이 스승을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다. 단순히 수업시간에 수업을 잘 듣는 것으로는 스승을 만들 수 없다. 사람마다 수업마다 교수법이 다르듯이 학생들이 선호하거나 잘 맞는 수업은 제각각이다. 그런 만큼 자신에게 적절한 수업을 찾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수업에서 지식 이상의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스승의 날’처럼 특별한 날에만 찾고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사제 간의 관계가 바람직하다.”



▶배움의 바람직한 자세는.

“너무 성적이만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수업을 하다보면 성격에만 집중해 재수강을 하는 학생들이 있다.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그런 학생들이 이미 들은 내용이라고 수업태도가 나빠지는 경우도 있다. 이 미 다 아는 수업을 단지 성적만을 위해서 여러번 듣지 않았으면 한다. 차라리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을 하면 더 좋다. 성격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배우느냐도 중요하다.”

박소연 기자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라”

강민석 미술학부 교수

▶어떤 제자들에게 관심이 가는가.

“학과 특성상 취업이나 진로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는 제자들이 보인다. 그런 제자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교수의 지도만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제자들이 스스로 좀 더 큰 틀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봤으면 한다.”



▶사제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최근 사회적으로 사제관계가 많이 퇴색했다는 말을 듣는다. 하지만 이는 일부 사례들을 너무 조금하게 일반화한 것이 아닌가 싶다. 교수는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닌, 연구자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스승과 제자 모두가 학문을 공부하고 공유하는 곳이 대학이다. 이런 대학 본연의 취지가 내부의 문제보다는 외부의 문제로 많이 퇴색했다. 외부의 문제란 취업만을 강요하는 현실과 학문에만 집중할 수 없도록 만드는 사회다. 이에 스승과 제자들의 관계도 변한 것이 아닐까. 이상적인 사제 관계를 위해 사회의 변화도 필요하다.”



▶제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학업의 목표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제자들이 많은 것 같다.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인지, 개인의 능력 문제인지는 모르겠다. 수업을 진행하거나 대화를 하다보면 제자들의 그런 면이 드러나곤 한다. 이에 뚜렷한 목표의식을 스스로 지녔으면 좋겠다. 보다 확실한 예술적 동기를 그들에게 심어주고 싶다. 이런 문제는 단순히 학생들의 잘못이기 보단 사회적인 요인으로 인해 대학생들이 변한 게 아닌가 싶다.”

강수빈 기자

2014년 영화로 만나는 재일제주인



일정 | 5월 20(화) ~ 5월 22일(목)
주관 |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는 재일제주인들이 고향 제주에 보여준 사랑과 헌신에 감사하며 그들의 삶을 재조명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영화상영을 하고자 합니다.

일본 안에서 우리의 민족적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온 그들의 정체성의 혼란과 편견 등을 반영할 일상의 모습을 이번 영화상영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며 여러분들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 별도의 참여신청은 받지 않습니다.(무료상영)

5월 20일(화) 오전11시

제주대학교 문화교류관
2층 시청각실



GO
-재일한국인의 정체성 및 편견
2001년 작.
드라마·로맨스·액션
상영시간 : 122분
감독 : 유키사다 이사오
주연 : 쿠보즈카 요스케
원작 : 가네시로 가즈키 <GO>

5월 21일(수) 오후2시

제주대학교 문화교류관
2층 시청각실



달은 어디에 떠 있는가
-재일한국인의 정체성 문제
1993년 작.
코미디·드라마
상영시간 : 109분
감독 : 최양일
주연 : 기시타니 고로,
루비 모네로
원작 : 양석일 <택시 광고곡>

5월 22일(목) 오후4시

제주대학교 문화교류관
2층 시청각실



디어 평양
-가족과 조국의 의미
2006년 작.
다큐멘터리·가족
상영시간 : 107분
감독 : 양영희

>> 제자들이 좋아하는 스승이 되려면?

“열정을 가지고 가르쳐주는 스승 존경”

▶교수님에 대한 생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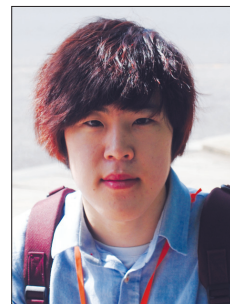
“말로 이론만 설명하시는 분도 있고 칠판에 써서 설명하시는 분도 있다. 어느 영어교양 교수님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장을 숙제로 내면서 재미있게 가르쳐 주셨다. 과목에 따라 교수님의 생각은 모두 다르다. 지루할 수 있는 수업을 재미있게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이 기억에 남는다.”

▶이런 스승님이 좋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스승님은 학생들과 거리를 두는 것보다 좁히는 교수님이다. 친구처럼 편한 것 보다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서 어색하지 않고 우연히 봐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교수님이 좋다.”

▶최고의 스승님은.

“김남형(해양토목공학과) 교수님이다. 연구실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연구실은 4학년인 나에게 정말 최고의 공부환경이다. 학과 내용에 관한 질의응답과 인생 조언을 아낌없이 해주신다. 공부하는데 있어서 컴퓨터나 필요한 물품들을 모두 지원해 준다. 연구실 안에는 소수의 인원



교규방
해양토목공학과 4

지금까지 만나왔던 교수님들은 자신의 분야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소신껏 가르쳐 주신다. 수업시간에 질문을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가르쳐 주신다. 어떤 교수님은 강의시간에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내용이 있으면 이해할 때까지 가르쳐 주셔서 좋다. 제주국제대학에서 편입을 해서 수업내용을 대부분 못 쫓아갔다. 편입을 하면서 학업에 어려움을 느껴 수강포기도 한번 했다. 그러나 교수님이 상담을 해주시고 많은 위로를 해주셨다.” 백승규 기자

밖에 없어서 더 신경써주시는 모습이 내 눈에 보인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스승님과 제일 부합하는 교수님이다.”

▶스승님께 하고 싶은 말은.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시선의 높이를 맞춰주는 스승이 이상적”

▶교수님에 대한 아쉬움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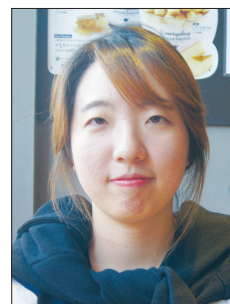
“권위적이다. 교수님들이 학교에 있다 보니 교수님들도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권위적인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학생에게 관심을 가지지도 않으면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거나 ‘나는 교수고 너는 학생이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다.”

▶권위적이지 않은 교수님은 없었나.

“앞서 말한 교수님에 대한 생각이 최근 한 수업을 통해 깨졌다. 부지현(미술학부) 교수님은 우리가 작업하는 동안 와서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옆에 있어 주셨다. 많은 의지가 됐다. 교수님의 지도 덕에 실력도 늘었다. 그 수업을 통해 교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작년에는 전공도 많지 않고 교수님이 잠깐 들르는 게 전부였다. 이번 학기는 교수님이 자주 찾아와서 관심을 보여주셨다. 직접 와서 조언을 해주시고 학생들을 신경써주셔서 감명 받았다.”

▶이상적인 스승님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서주시는 교수님. 시선을 위에서 아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같이 봐준다. 의사를 물어보면서 확인해주고 학생들에 맞게 수업방식을 바꿔나



송유진
미술학부 2

를 바란다.”

▶교수님께 바라는 것이 있다면.

“교수님이 하시는 말 중에 주제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황설수설 말을 늘어놓으시거나 사족을 길게 하는 분이 있다. 또 책이나 올려놓은 자료를 똑같이 읽는 교수님이 있다. 그대로 읽기보다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해 주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과제를 무리하게 내는 교수님이 있다. 우리는 그 한 개의 과목만 듣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고 적당한 과제를 내줬으면 한다.”

김보라 기자

>> 문화단신

미술학부 제대미전 개최

예술디자인대학 미술학부(학회장 양승환 서양화전공 3)에서 개최한 제42회 제대미전이 23일부터 27일까지 제주도 문예회관 제1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서양화, 한국화, 조소 등 전공분야별 작품이 약 140점이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회에 참여한 최유정(서양학과 1)씨는 “이번 전시를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미흡하지만 열심히 준비했으니 많이 찾아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하윤 기자

뮤지컬 ‘낯술’ 공연

21일 아라뮤즈홀에서 진행

극단 가람(대표 이상용)의 뮤지컬 ‘낯술’ 초정 공연이 21일 오후 2시 아라뮤즈홀에서 열린다.

제주대 문화광장에서 마련한 뮤지컬 ‘낯술’은 세상 살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목숨을 끊으려는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다잡도록 용기를 불어넣는 이야기이다.

이상용 대표가 작곡한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 ‘낯술 마신 것처럼’ 등 12곡의 창작곡들은 무대의 배경과 대사로 활용돼 정극과 음악극이 어우러진 무대를 연출한다. 김하윤 기자

‘콘체르토의 밤’

피아노 연구부 정기연주회

예술디자인대학 음악학부 피아노 연구부(주임 박순방 음악학부 교수)가 지난 20일 아라뮤즈홀에서 ‘콘체르토의 밤’을 주제로 제24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주회는 교전파와 낭만파를 오가는 작곡가들의 곡으로 구성됐다. 모차르트의 ‘모차르트 : 피아노 협주곡 사장조 1악장’을 시작으로 총 5곡이 연주됐다.

연주는 피아노 연구부 4학년 강예인, 김규리, 김명혜, 박재연, 표정은씨 등 4명이 맡았다. 정현 기자